
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

2023. 12.

방콕해외전문체득훈련 결과보고

2023년도 해외전문체득훈련(11. 20.(월) ~ 11. 25.(토) 4박 6일, 태국 방콕)의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.

□ 주요 활동 및 성과

《 주요 성과 》

-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 도시 관리 시스템 견문
- 녹지공간의 활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례 체득

○ 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 시스템 견문

- 태국은 2011년 10월 말 홍수로 인해 3백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, 6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음
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방콕에 다양한 규모의 녹지 및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음

○ 녹지공간 활용 시민편의제공 사례 체득

- 방콕의 공원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공해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함
-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, 나아가 웰빙에 대한 니즈를 충족
- 더불어 관광사업에도 부가 효과가 있음

□ 향후 계획

- 부천시의 일률적인 소공원들을 테마 공원으로 조성
- 시 외곽의 호수공원을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
- 공원 내의 체육시설 소독 및 보수 시 생물종다양성 고려

방콕 해외견문체득훈련 세부 결과보고

I 해외견문체득훈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

【1일차】

- 출국 17:10 - 호텔 투숙 21:15(현지 시간)

【2일차】

- 왕궁 방문

- 왕궁은, 방콕으로 수도를 옮긴 1782년에 차오프라야강 옆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후대 왕들이 여러 건축물을 추가하면서 점차 규모가 커졌고 라마 5세 때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 1932년까지 정부청사이자 행정부 건물로 사용됐음
- 왕궁에는 왓 프라깨우라고 불리는 에메랄드 사원도 함께 있음
- 수백 년 동안 화려하게 유지되어 온 이면에는 작은 붓을 이용해 먼지를 털고 있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고, 봉사 및 희생정신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음을 느낌
- 또한 왕궁의 화려함은 태국이 월등해 보이지만, 자연과의 조화 면에서는 우리나라 궁궐의 우수함도 엿볼 수 있었음
- 우리 부천에서도 선사문화 유적지를 더 개발하여 역사 문화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임

○ 션셉운하

- 차오프라야강의 지류 중 한 곳으로 방콕시내를 동서로 연결
- 운하버스는 지상철, 지하철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주거지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한 방콕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
- 우리 부천 또한 인천-서울을 잇는 교통요충지로서 그를 염두에 둔 전략적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【3일차】

○ 웨어하우스30

- 4,000m²의 널찍한 내부는 7개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, 내부에는 셀렉트숍과 카페, 가구 쇼룸, 서점 등이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
- 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두앙릿 분낙이 리노베이션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사용되었던, 버려진 창고가 차런끄룽 지역의 아트 허브로 재탄생
- 부천아트벙커 B39와 흡사하다고 느꼈으며, 건축물도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음

○ 국립박물관

- 1874년 라마 4세에 의해 만들어진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

으로, 태국의 예술품과 유물 건축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음

- 부천시의 크고 작은 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

【4일차】

○ 롬피니 공원

- 왕실 소유지였던 땅을 1942년 라마 6세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
- 공원 내에는 인공호수 2곳이 조성됐고 태국 최초의 도서관인 수안 롬피니 공원 도서관과 각종 스포츠 장비를 대여하고 실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롬피니 청년센터가 있음
- 롬피니 공원은 시내 중앙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, 부천의 호수공원은 대시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느낌

○ 쫄라롱간대학교

- 1899년 건립된 태국 왕실 직원과 공무원의 교육기관이었던 곳을 라마 6세에 의해 1971년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
-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, 조경에 세세히 신경 쓴 부분들이 인상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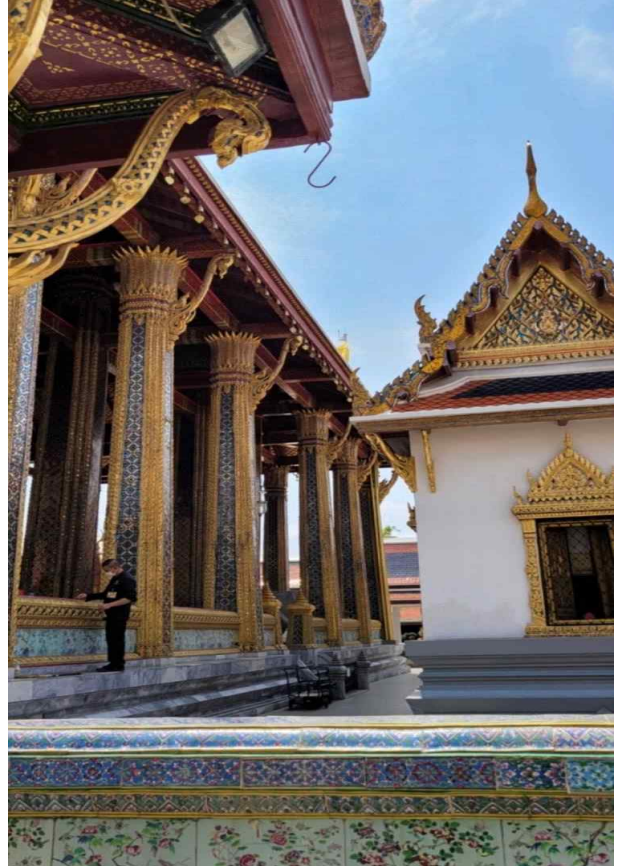
【5-6일차】

○ 출국 및 이동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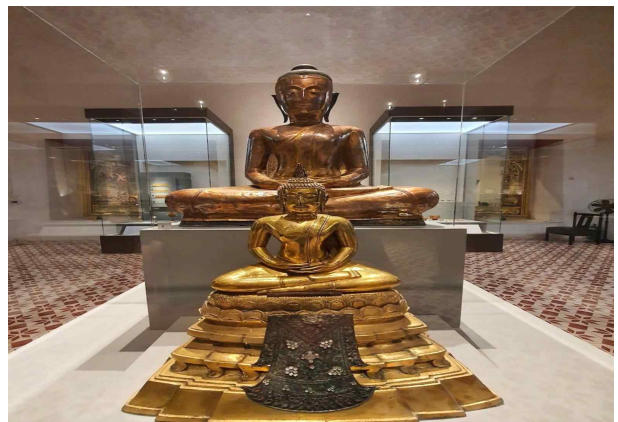
방콕 해외전문체육훈련 활동사진

【방콕 왕궁 및 사원 방문, 운하 산책】 11월 21일(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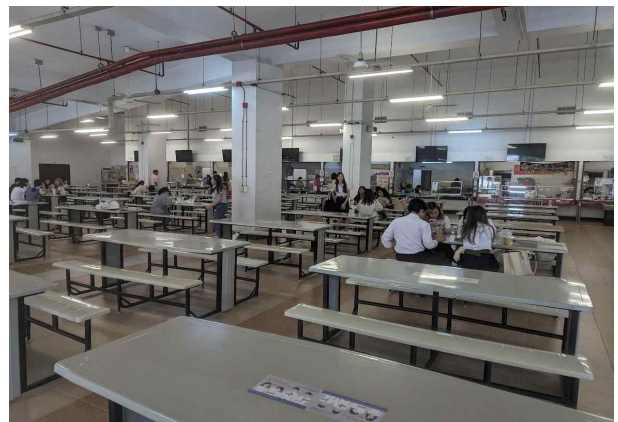
- 이민우: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왕궁의 건축물들은 의외로 태국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보였음.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오늘의 관광 태국을 만들었다 사료됨.
- 유흥연: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운하 버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, 깨끗하지 않은 강물은 공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낌. 장기적으로 지켜봄 직한 사례로 판단됨.

【웨어하우스30 및 국립박물관 견학】 11월 22일(수)



- 이민우: 부천에도 소박한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, 동선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아트벙커B39와 같은 문화센터에 대한 교통/주차 지원도 중요함.
- 유흥연: 웨어하우스30을 살펴보니 문화공간은 기성 세대와 MZ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함.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외부 방문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음.

【롬피니 공원 및 즐라롱껀대학교 방문】 11월 23일(목)



- 이민우: 동, 식물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롬피니 공원은 방콕 시민들만이 아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우리 부천호수공원의 강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 보임.
- 유흥연: 대학이 지역 시민들에게 ‘실질적으로’ 개방되어 있어 문화적, 교육적 혜택을 만인이 누릴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임. 부천 하면 떠오르는 교육기관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안일 될 듯.

끝.